

테크 반도체 | 팹리스 | 좌담회 | 시스템반도체

한국 중소팹리스가 '생존 위협' 느끼는 세 가지 이유



이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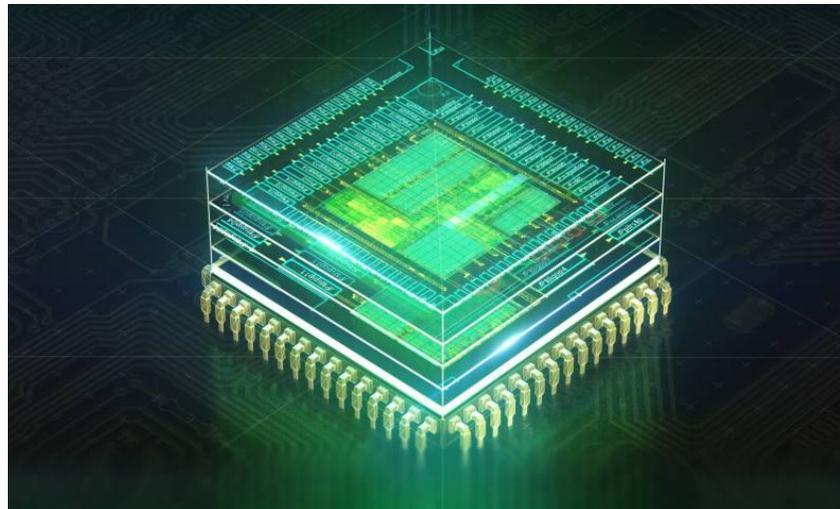
구독



발행일 2022-05-14 11:00:02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유니콘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하여' 좌담회에 반도체 업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반도체공학회가 주최한 이날 자리에선 한국 시스템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좌담회 발표자뿐 아니라 청중들까지 나서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된 반도체에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반도체만 떼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점유율 3%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로 시야를 좁혀보면 지난해 기준 비중은 단 1%(IC인사이드 기준)다.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지만 팹리스에선 그렇지 못하다. (사진=지멘스 블로그 갈무리)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크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IT인프라가 잘 발전됐고 교육열도 우수하며 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 경험도 많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국가는 세계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할 정도다. 그럼에도 왜 한국 시스템반도체는 이처럼 세계에서 외면당하고 있을까. 과거 '약체'로 불렸지만 오늘날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대만 미디어텍같은 회사가 왜 우리나라에선 탄생하지 않을까.

정부는 물론 국내 대기업 고객사들조차 국내 팹리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이날 발언자들의 공통된

지금 뜨는 뉴스

- 1 테라·루나 사태에 테더도 휘청...스테이블코인 구조적 한계인가?
- 2 [넘버스]삼보컴퓨터, 갑작스런 대표 교체 배경은
- 3 셀트리온제약, 영업 마진 출혈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 쟁겼다
- 4 쿠팡 이커머스 사업, 에비타 기준 첫 흑자
- 5 [게임인사이드]C2X 생태계, 세 번째 블록체인 게임은 '크리티카'

BLOTER.TV +

상장 앞둔 에이피알, 뷰티업계 '애플' 꿈꾼다

'일질러'는 회의 어떻게 하나요?...김지현 SK부사장이 제시하는 시간...

시각이었다.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강국 정부들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혹여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밀려 '자생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중소 팹리스 위한 인력 양성 기반이 없다

이날 행사에선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도 적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이 경영을 위해 뽑을 인력도 적고 그들을 육성할 학계 교수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인력 확충에 큰 문제가 없다. 국내 반도체 구직자들의 1순위 취업처이기도 하거니와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우수 인력을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뺏기며 구직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중소 팹리스 인력 부족→좋은 제품·스타성의 부재→구직자들의 외면→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좌담회 발표자들은 전문 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며, 인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도체 설계 인력을 키우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호 네메시스 대표는 "타 전공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설계 아카데미를 신설 확대해야 하며 반도체 설계 석·박사 과정을 확대 지원하고 설계 교수 확충, 설계 전공자 증원, 관련 프로젝트 지원 등의 육성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재희 홍익대학교 교수(반도체공학회 부회장)도 "반도체 학과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게 문제다. 중위권 대학도 팹리스 학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또 교수가 설계 연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정작 논문이 안 나오면 일할 수 없다. 인사고과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② 팔리거나 혹은 망하거나...외면당하는 팹리스

'대박'을 내지 않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팹리스 생태계도 문제로 거론됐다. 팹리스에 대한 국내 대기업들의 비우호적 분위기가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는 걸 어렵게 만들며, 정부도 지금껏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에는 삼성·SK와 같은 대규모 칩 메이커만 있는 게 아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위탁 생산할 파운드리와 공정을 마무리하는 백엔드(후공정·OSAT) 업체들도 있다. 이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이뤄야 반도체 생태계가 단단해진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토종 팹리스'가 없는 이유도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성장할 토양이 '작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좌담회에선 이에 대해 삼성과 SK 등 대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생태계 조성을 등안시하고 자체 수직 계열화만 도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약한 중소규모 팹리스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주목받는 팹리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고 파산하는 방식은 팹리스뿐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스마트폰 'GOS 사태'가 대표적이다. 다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자체 폐쇄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설계하려다보니 그 같은 사단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좌담회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와 직접 경쟁하는 대만은 접근법이 달랐다. TSMC는 중소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을 만드는 회사들을 끌어안은 각종 연합체(IP얼라이언스·EDA얼라이언스·디자인 센터 얼라이언스·클라우드 얼라이언스·가치사슬 생태계)를 일찌감치 만들었다. 덕분에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포트폴리오가 방대해졌다. 삼성전자

'SKT·KT·LGU+'알뜰폰 공세 속 '중가 요금제'...
알뜰폰에는 '호구'가 없기를...'모요'는 다 모아 보여준다

뉴스레터

최신 IT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광고성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구독하기

가 2019년 비슷한 형태의 'SAFE'(삼성 파운드리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일찌감치 시스템반도체를 밀어주는 정책을 펼쳤다. 1987년 TSMC 창업자 모리스 창(Moris Chang)이 회사를 세울 때부터 대만 정부가 출자 형태로 자금을 대줬다.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었던 위탁생산 전문이었지만 정부가 믿고 각종 재정적, 인프라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20년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만 정부는 TSMC에서의 성공 사례를 미디어텍에도 그대로 이식했고, 덕분에 5G 시대 퀄컴을 뛰어넘는 AP를 만드는 업체로 도약했다.

③ 2~3년마다 담당자 바뀌는 정부 부처

전문성 없이 수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관료 문제도 거론됐다.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국책과제 수행이다. 우리나라에선 반도체 R&D에만 국가적으로 약 10조원의 지원금을 펼치지만, 막상 장기간 연구가 이어지는 팹리스 업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기업들에게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할뿐더러 '페이퍼 워크'에 치중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료가 승진이나 성과 평가 등 ‘보신’에 치중하다보니 인해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고 있다”라며 “현업 종사자들이 정부 국책자원을 기피하고 벤처캐피탈의 문을 노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M&A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해외 주요 거점에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기존 KIC를 확대 지원하고 시장조사와 고객 연결, 인프라·법률 지원 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또 M&A에선 중소기업 간 합병이 있을 때 국책은행 등에서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팹리스 토양을 만드는 데는 기업과 정부가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중소기업들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게 팹리스 업계의 시각이다. 유재희 교수는 “대기업이 팹리스 중소기업 얼라이언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IP도 사는 등의 일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팹리스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우수한 인력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성호 대표는 “중국의 경우 WTO 협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전문 인력들에게 국가적 지원을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눈 먼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다소 과하더라도 지원을 집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업계와 대기업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기업과 팹리스 간 동반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유니콘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하여' 좌담회 참석자들이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블로터)

© Bloter&Media Inc. All rights reserved.



이일호 기자 atom@bloter.net +

- [넘버스]메디큐브·널디, 이 회사거였어?...IPO 추진 에이피알 '몸값'은
- 한국 중소팹리스가 '생존 위협' 느끼는 세 가지 이유
- DB하이텍, 1분기 영업이익이익률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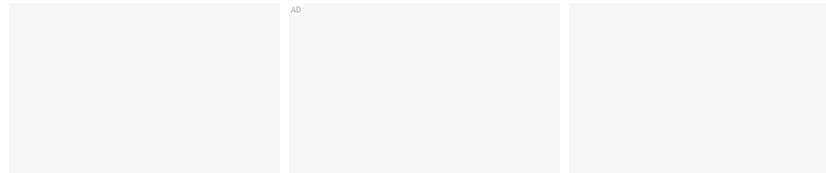
함께 보면 좋은 뉴스

"한국 반도체엔 '인재'가 부족하다"

카이스트·평택시·삼성전자, 반도체 인력양성 업무협약...

추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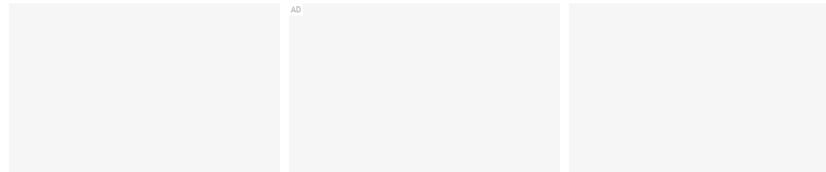
by



카카오페이, 여전히 물량부담 우려...알리페이 처분 가능성, 답변 어...

컴퓨터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임!

"한국 반도체엔 '인재'가 부족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문 기관도 '점유율 하락' 전망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면 올해 '큰돈' 벌수있다

[윤's BT·IT]②확산되는 '비대면 의료 시대', 약사만 '반대'



추천뉴스

AD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400홀(불투명) / Arduino..

[윤's 뉴스페이스]②한달 뒤 누리호 2차 발사, 무엇이 달라지나...국정부, ...

테라-루나 사태에 테더도 휘청...스테이블코인 구조적 한계인가?

AD

아두이노 12V동작 단색 LED스트립 5m (LED 3..

기아차 마니아였던 제주 EV6 차주, 급발진 주장하는 2가지 근거

[윤's BT·IT]③공공서 상용 SW 못 띄운다는데...삼성SDS·LG CNS·SK(株)&C...

1 2 3

댓글 (1)  

소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 / 300 [등록](#)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새꾸돌 2022-05-15 11:28:02

결론은 대만을 배우고 대만을 벤치마킹하는 거면 되는 거네요.
 정책당국은 삼성만 바라보지 말고 대만의 생태계 조성을 잘 분석해서 신속하게 도입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세부대책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제시했으니 정교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을 기대합니다.

0 0

© Bloter&Media Inc. All rights reserved.

[회사소개](#) | [서비스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주)블로터엔미디어 | 대표 문병선 |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3 8층 | 사업자등록번호 105-86-93754
 제호 블로터 | 등록번호 서울 아 00239 | 등록일자 2006-08-25 | 발행인 문병선 | 편집인 문병선
 기사문의 02-2069-0566 | 광고문의 02-2069-0566 | 서비스&제휴문의 02-2069-0566